

大學博物館과 教育

- 現況과 課題 -

崔 鍾 澤 *

목 차

1. 序 言
2. 大學博物館의 現況 -教育的 機能과 關聯하여
3. 大學博物館 教育의 方案
4. 大學博物館과 社會教育
5. 結 語

1. 序 言

수 백년의 역사를 가진 歐美의 박물관에 비하면 짧지만, 우리 나라 대학박물관도 65년이라는 결코 짧지만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¹⁾ 1950년대 이전의 대학박물관은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오늘날에 비하면 매우 빈약한 수준이었지만, 1955년 ‘大學設置基準令(대통령령 제1063호)’이 공포되고, 1967년 1970년 개정을 거쳐 대학박물관의 규모가 규정되면서 급격히 성장하여 왔다(安承周 1986b: 9)²⁾ 해방 후 80년대까지의 대학박물관을 “태동에서 발돋움” 혹은 “가능성을 시험받은 기간”이라고 평가한다면(安承周 1986b: 7), 오늘날의 대학박물관은 “발전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향상을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이란 관련된 자료를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는데,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정관과 전문직원 윤리요강에는 “박물관은 사회와

*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1) 세계적으로 대학박물관의 효시는 1671년 스위스의 Basel대학의 도서관 일부에 설치된 박물관을 들고 있으나, 근대적인 시설을 갖춘 대학박물관으로는 1683년 영국 Oxford大學의 Elias Ashmolean 박물관으로 볼 수 있다(최중호 1997: 45).
- 2) 자료에 따르면 1950년대까지는 8개에 불과하던 대학박물관이 1960년대에는 25개교로 증가하였고, 1970년대에는 39개교로 증가하였으며, 1886년 현재 모두 58개교가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 등록되었다(安承周 1986b: 8). 1998년 12월 현재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 등록된 대학박물관은 모두 74개교에 달한다(《古文化》第52輯, p.305 참조)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중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학습과 교육·위락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보존·연구·교류·전시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최종호 1996: 11; 이인숙 1988). 대학박물관은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박물관으로서 다양한 박물관 중의 하나이므로 이와 같은 박물관의 정의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에 교수와 학생 및 교직원이나 해당분야의 조사·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며, 따라서 박물관의 여러 기능 중에서 교육적인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박물관은 대학사회와 대학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학의 교수와 교직원·학생 그리고 조사·연구자들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학습과 교육·위락을 위한 각종 자료와 특정사실을 수집·보존·연구·교류·전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최종호 1997: 49). 그러나, 많은 대학박물관이 시설이나 인력·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까닭에 대학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박물관이 고고학적 조사·연구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전시나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까닭에 일찍부터 대학박물관의 여러 기능 중에서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여러 先學들의 글이 발표된 바 있으며(尹世英 1982; 鄭永和 1986; 許善道 1986; 최종호 1997), 이 글도 그러한 맥락에서 준비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박물관학 전공자도 아니며, 이 분야에 대해 특별히 공부한 바도 없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고, 다만 지난 10여 년간 서울대학교박물관에 근무하면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과 관련한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大學博物館의 現況 -教育的 機能과 關聯하여

주지하듯 1934년 現 高麗大學校의 전신인 普成專文學校博物館이 개관된 이래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온 우리 나라 대학박물관은 1960년대 이후 양적인 면에서 급격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법적 근거의 미약, 施設의 不備, 연구인력의 부족, 예산부족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으며(安承周 1982; 1986b; 柳元迪 1992; 鄭鎭鳳 1995a; 1995b; 최종호 1997),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1995년 현재 대학박물관의 숫자는 모두 80개인데, 이는 국립박물관을 포함한 전체 박물관

170개의 47.1%에 달하는 많은 수이며(鄭鎭鳳 1995a: 4), 숫자상으로는 우리 나라 박물관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이들 대학박물관의 성격을 살펴보면 각 지방별·대학별로 특성을 살린 전문박물관도 25개나 되어(安承周 1986a: 8), 선진국에 비해 박물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國·公·私立博物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대학박물관은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고, 대학의 구성원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박물관의 여러 기능 중에서도 教育的 機能이 더욱 강조된다. 많은 대학박물관이 종합화를 지향하고 있고(鄭鎭鳳 1995a: 28의 <표1-1>), 최근 들어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육적 기능에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대학박물관의 주요 기능이 고고학 등 특정분야의 연구·조사에 치우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장에서는 우리 나라 대학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지난 1982년 이래로 대학박물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차례의 설문조사와 그에 따르는 분석적 연구가 이루어졌는데(安承周 1982; 安承周 1986a;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편집실 1992; 정진봉 1995a; 1995b),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적 기능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수집된 자료와 자료를 연구·관리할 인력, 그리고 자료와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시설)을 들 수 있는데(하계훈 1996: 171), 최소한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박물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박물관이 이 세 가지 요건이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다.

박물관의 소장 자료는 단기간에 확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또한 대학박물관의 역사와 더불어 비교적 많은 양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상황이다.³⁾ 그러나 박물관의 공간 즉, 시설의 문제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표 1>은 지난 1982년부터 실시된 대학박물관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 시설에 관한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1982년의 경우 박물관 전용 독립건물을 보유한 박물관이 21.4%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95년에는 41.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독립건물을 확보하고 있는 비율이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3) 1986년 47개교 대학박물관의 자료 보유수량은 총 380,045점으로 조사되었고, 1995년도의 경우 67개교의 자료보유수량이 529,784점으로 조사되었다(鄭鎭鳳 1995b: 38).

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박물관이 조사·연구나 유물 창고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기형적인 현상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으로 생각된다. 특히, 현재의 시설에 대한 박물관 측의 불만요소를 보면 수장고의 보존환경(78%), 공조시설(76%), 시설의 규모(68%), 전시실의 보존환경(68%), 조명 시설(56%), 진열장(52%), 방화 및 보안시설(4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鄭鎮鳳 1995b: 67), 이는 자료의 전시나 보존관리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표 1〉 대학박물관의 독립건물 확보 여부⁴⁾

구분 \ 연도	1982년	1986년	1992년	1995년	비 고
독립건물	9(21.4)	16(32.7)	21(35.6)	23(41.8)	
타기관과 병설	33(78.6)	33(67.3)	38(64.4)	32(58.2)	
합 계	42(100)	49(100)	59(100)	55(100)	

이처럼 시설이 완비된 독립건물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학박물관이 직면한 문제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대학당국의 개선의지가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학당국의 투자이욕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62%를 넘고 있어서(鄭鎮鳳 1995b: 67의 〈표 1-11〉 참조), 당국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박물관에서 학예직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학예직원은 박물관의 운영전반에 걸쳐 의사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요원으로서, 자료의 수집·연구·조사·보존·전시·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학예직원은 박물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이하 각 통계표의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安承周, 1982, 「韓國大學博物館의 現況과 問題點」, 『古文化』第21輯, pp.21~35

安承周, 1986b, 「大學博物館의 現況」, 『古文化』第28·29合輯, pp.7~21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편집실, 1992, 「대학박물관현황에 대한 설문지」, 『古文化』第40·41合輯, pp.171~222

鄭鎮鳳, 1995a, 「대학박물관의 현황과 전망」, 『古文化』第46輯, pp. 3~45

鄭鎮鳳, 1995b, 『韓國博物館의 實態와 性格에 關한 分析의 研究-大學博物館을 中心으로-』, 慶熙大學校教育大學院碩士學位請求論文

〈표 2-1〉 대학박물관 학예직원 보유현황

구분 \ 연도	1982년	1986년	1992년	1995년	비 고
보 유	19(45.2)	39(78.0)	54(91.5)	43(86.0)	
미보유	23(54.8)	11(22.0)	5(8.5)	7(14.0)	
합 계	42(100)	50(100)	59(100)	55(100)	

〈표 2-2〉 대학박물관 학예직원 보유현황(1992년도)

학예직원 수	없음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합계
박물관 수	5 (8.5)	17 (28.8)	16 (27.1)	12 (20.3)	6 (10.2)	3 (5.1)	59 100)

〈표 2-1〉은 각 대학박물관의 학예직원 보유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1982년에는 학예직원을 보유한 박물관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모든 대학박물관이 학예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그러나, 〈표 2-2〉를 보면 1992년 현재 학예직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거나 2인 이하의 학예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이 64.4%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들 학예직원으로 표현된 인력 중 일부는 정부나 대학 당국의 정식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시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정규 학예직원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⁶⁾

또, 이들 학예직원들의 대부분이 고고학이나 역사학 등 특정분야의 전공자들로써 박물관의 전시·보존·교육 등의 업무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인력들이다. 즉, 대부분의 박물관이 부족한 학예직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교적 풍부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정 분야에 제한된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박물관에서 1~2명의 학예직원들이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조사·전시·교육에 관한 업무를 모두 담당해야 하며, 심지어는 일반행정 업무까지 담당해야하는 경우도 있어서 박물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음은 예산상의 문제인데, 1995년도의 조사결과 현재의 예산이 적당하거나 충분하다는 박

5) 〈표 2-1〉을 보면 1992년보다 1995년의 학예직원 보유율이 낮는데 이는 실제 학예직원의 보유율이 줄어든 것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설문조사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6) 실제로 박물관에 학예연구직의 직제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34%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학예직원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대학의 경우 중 일부는 정규 직제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鄭鎮鳳 1995b: p.78의 〈표 4-4-1〉 참조).

물관은 10%에 불과했고 거의 대부분의 대학박물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조사되었다(鄭鎮鳳 1995b: 72의 <표 3-2> 참조).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현재 예산의 100%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8%나 되며(鄭鎮鳳 1995b: 73의 <표 3-5> 참조), 학술조사 예산의 대외 의존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鄭鎮鳳 1995b: 73의 <표 3-6> 참조) 절대적인 예산 부족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지만 정부나 대학당국의 의지와 관련된 것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다음은 구체적인 교육 및 보급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선 각 대학박물관의 연중 개관시간을 보면 <표 3>과 같은데, 절반 이상의 박물관이 주당 5~6일씩 개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시설이나, 예산, 인력의 문제에 비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관일 수는 1986년 이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아예 관람객에게 개방을 하지 않거나 부정기적인 개관을 하는 곳도 상당 수 있어서 박물관 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대학박물관의 개관일 수

개관일수 \ 연도	1986년	1992년	1995년	비 고
개관안함	9(17.3)	6(10.2)	8(16.0)	
1~4일	16(30.8)	19(32.2)	13(26.0)	
5~6일	27(51.9)	34(57.6)	29(58.0)	
합 계	52(100)	59(100)	50(100)	

<표 4> 대학박물관 관람객 수 (1992년)

관람객 수	없음	1천명 미만	5천명 미만	1만명 미만	1만명 이상	합계
박물관 수	6 (10.2)	17 (28.8)	16 (27.1)	12 (20.3)	8 (13.5)	59 (100)

또, 대학박물관의 연중 관람객 수를 보면 <표 4>와 같은데, 연중 관람객이 5천명이 넘는 곳은 20.3%에 불과하며, 관람객이 1만명이 넘는 곳은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와 같이 특수한 성격의 박물관이 주를 이루고 있다(鄭鎮鳳 1995b: 41). 대학박물관의 80%

정도는 연중 관람객 수가 5천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주당 100명 미만의 관람객이 박물관을 찾는 것이 되며, 주당 5일을 개관할 경우 하루에 20명 정도의 관람객이 박물관을 찾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관람객의 수가 적은 것은 전시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으나⁷⁾, 그밖에 전시와 관리를 담당할 인력의 부족, 예산의 부족, 그리고 박물관 측의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다른 여러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박물관 측의 노력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대학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매우 소극적이고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대학박물관에서 관련분야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중 1회 이상 정기적인 학술세미나를 실시하는 곳은 전체의 26%에 불과하다.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은 전체의 40%에 불과하여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鄭鎭鳳, 1995b: pp.81~82). 그러나, 영남대학교박물관을 비롯한 일부 대학박물관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박물관대학' 또는 '박물관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성태규 1994).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박물관의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박물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으로 지난 1982년 이후에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박물관의 현황과 문제점, 특히 교육적인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한마디로 우리 나라 대학박물관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미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대학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시설의 不備, 학예직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예산의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박물관 종사자들의 의지와 노력의 부족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박물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에 든 요건들이 최소한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은

7) 실제로 서울대학교박물관의 경우 도서관의 일부를 박물관으로 이용하던 1993년의 경우 개관일이 연중 60일에 불과하였으며 관람객의 수가 5,582명에 불과하였으나, 현재의 독립건물로 이전·개관한 후인 1994년에는 22,037명, 1995년에는 34,541명, 1996년에는 35,201명, 1997년에는 34,982명, 1998년에는 51,671명, 1999년에는 55,670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박물관의 경우에도 시설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서울大學校企劃擔當官室, 1999, 『서울大學校統計年報』, p.65).

당연하지만, 우선 인력(특히 학예직원)의 확보문제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박물관의 학예직원은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자료를 매개로 하여 학술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며, 전시와 교육을 통해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학기술자로서의 학예직원·연구자로서의 학예직원·교육자로서의 학예직원 등 최소한 3개 분야이상의 전문가가 확보되어야만 한다(권계순 1979: 43). 이와 비교하면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비관적인데, 대부분의 대학박물관이 학예직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학예직원의 대부분이 특정분야에 제한된 연구자들이다. 또한 현재의 학예직원 중 많은 경우에 정규 직제를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로는 특정분야의 전공자인 학예직원 한사람이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만 하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전시나 교육기능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학박물관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과 보존, 조사·연구, 전시·교육 등과 관련한 최소한 3인 이상의 학예직원을 확보하여야만 한다.

시설의 문제 역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서 제반 시설을 갖춘 독립건물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교육적인 기능이라는 측면에만 제한한다면, 다른 기관의 건물을 개수한다든지 인접 강의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장 자료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연구를 위해서는 전시실·수장고·정리실·강의실·연구실 등의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박물관의 활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의 확보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적절한가는 각 박물관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대부분의 박물관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 든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이고 정부와 대학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박물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없이 정부와 대학 당국의 지원만을 바라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며, 현 상태에서 최선의 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大學博物館 教育의 方案

1960년대 말 이후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은 최근 들어 꾸준히 강조되고 있으며, 최고 교육기

관인 대학 내에 설립된 대학박물관의 경우 교육적인 기능이 더욱 강조되어야함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은 박물관 자체의 교육적 기능과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박물관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문화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이 행하는 사업 그 자체가 교육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창조적인 지식과 자기개발의 장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장소로서 전시와 해설, 자료에 대한 강좌·강습회, 자연관찰 및 견학, 이용자에 대한 쾌적한 환경의 제공,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중요한 기능을 말한다. 후자는 학교 교육에서 박물관을 능동적으로 인식하여 지식 재창조의 장소로서 이용하며, 교육 내용과 관련시켜 박물관을 찾아가 견학·관찰하고 답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한다(송춘영 1995: 146). 그러나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은 이와 같이 뚜렷이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위에 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대학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대학 구성원(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와 실습, 대학 구성원과 일반인을 위한 전시,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한 사회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많은 대학박물관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대학박물관의 교육 대상은 일차적으로 학생에 맞추어져야 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관련학과의 교과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강의와 실습을 통해 교육하는 것과 전시를 관람하게 함으로서 간접적인 교육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많은 대학박물관이 종합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미 종합박물관의 성격을 갖춘 곳도 있다. 따라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고·인류·역사·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해당하며, 박물관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강의와 실습이 가능한 분야도 인문·자연과학·예술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박물관이 고고학 등 특정분야의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보다 폭넓은 분야의 교육을 위해서 광범위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의와 실습을 통한 직접교육 방식은 박물관에 강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을 경우 전적으로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강의실에서의 강의와 박물관에서의 실습을 연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물론 강의시간에 각종 영상자료와 보조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실물자료를 직접 접함으로써 훨씬 배가된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많은 대학이 여름학기나 가을 계절학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박물관에서의 직접교육도 이를 이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고고학실습'이나 '미술사실습' 등 각종 실습과목은 학기 중의 이론 강의와 계절학기 중의 실습으로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학기 중의 형식적인 실습보다 훨씬 심도있는 실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고학 분야의 경우 발굴조사의 대부분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강의와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이론과 실재를 습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박물관에서의 직접적인 교육은 박물관 전문인력의 양성에 특히 유용하다. 박물관의 전문인력은 박물관 자료의 수집과 보존·관리 및 조사·연구·전시·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이들의 교육을 박물관에서 실시해야하는 당위성은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⁸⁾ 현재 국내에서 박물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공식적인 기관이 2년제 전문대학 1개소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하계훈 1996: 174),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정식으로 조사된 자료는 없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박물관에서는 정규 교과목을 강의하는 곳이 없으며, 박물관에서의 실습을 통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대학박물관에 소속된 교수 인원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관장이나 부장 등 박물관에 소속된 교수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련학과의 교수가 겸직하고 있으며, 관장을 제외하고는 박물관의 주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박물관의 교육업무를 담당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박물관 자료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박물관에도 교수 직제가 마련되어 관련학과의 강의와 실습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박물관의 전시는 단순한 자료의 진열이 아니라 각종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결과물로서 체계적이고 입체적이어야 하며, 학생들은 이러한 전시를 관람함으로써 관련된 분야의 지식을 간접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시를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하며, 여러 가지 전시 기법을 동원하여야 하는데, 박물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박물관이 솔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전시를 기대하

8) 외국의 경우 박물관 전문인력(Curator)의 자격과 자질을 정부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교육과정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반드시 일정 기간 박물관에서 실제 훈련을 받은 후에야 자격이 주어진다(하계훈 1996: 176~181). 우리나라의 경우 박물관 전문인력(學藝研究士: Curator)은 일반직 7급 공무원 채용에 준하는 자격과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데, 이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의 자격을 법으로 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柳元迪 1996: 6~8).

기는 난망한 일이다. 실제로 대학박물관은 물론 비교적 체제가 잘 갖추어진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도 전시 기획에서 각종 보조자료의 제작 및 진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특정분야의 전공 연구자들인 학예연구사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입체적인 전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국의 어느 대학박물관을 가더라도 천편일률적인 자료 중심의 나열식 전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박물관을 찾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박물관에서의 전시는 평시의 상설전시와 주제에 따라 단기간 이루어지는 기획전시나 특별 전시로 나눌 수 있으며, 상설전시는 종합전시와 부문별전시로 구분된다(임채진, 1996: 34). 상설전시는 각 박물관의 특성이나 기획에 따라 연중 관람객에게 공개되는 전시를 말하며,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전시물의 교체가 이루어진다. 기획전시나 특별전시는 상설전시와는 별도의 특별한 주제를 중심으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상설전시도 그러하지만 주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 전시기획을 하게 되므로 특별전시를 통해 얻는 간접적인 교육의 효과는 상설전시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시 자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수행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전시를 통한 간접교육의 형태는 평상시 자유관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관련 교과목의 강의 중에 학생들로 하여금 박물관의 전시를 관람하게 하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특별한 주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과제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 경우에도 학생들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 전시자료를 관람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박물관 학예직원의 보충설명이나 전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박물관의 교육적인 활동으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자료의 보급을 들 수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공공통신망의 이용은 사회 전분야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통한 박물관자료의 공개와 보급은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는 박물관은 전체의 8% 수준에 불과하고(鄭鎭鳳 1995: 69의 <표 2-5> 참조),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류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대학박물관은 전체의 2%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최중호 1997: 50). 따라서 각 대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전산화와 컴퓨터통신망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며, 학예직 인력에 대한 재교육이나 이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4. 大學博物館과 社會教育

오늘날 박물관의 사회교육적인 측면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많은 대학박물관이 사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박물관의 사회교육의 방법은 전시실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 자체를 비롯하여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위에 예를 든 각종의 박물관강좌를 비롯하여 특별 주제에 대한 강연회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주민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각종 언론매체나 지역방송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특수한 계층이 아닌 지역 주민 전체를 교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현재 대학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박물관회' 등과 같은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회원의 소속감을 높이고 박물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회원제 운영방식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서울대학교박물관을 비롯하여 영남대학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등에서는 이미 각종의 사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 1995년도의 조사결과 모두 20개 대학박물관이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박물관대학' 또는 '박물관교실'이나 '교양강좌' 등 자체 교육프로그램이나 사회교육원·평생교육원 등 다른 교육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鄭鎭鳳, 1995b: 82의 <표 5-4>, <표 5-5> 참조). 이처럼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대학박물관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어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교육 대상이나 주제, 교육 방식 및 시설문제 등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제기되고 있으며⁹⁾, 본 절에서는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요교양강좌'의 운영실태와 수강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

1995년도 1학기부터 운영 중인 서울대학교박물관의 '수요교양강좌'는 서울대 구성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는데, 학기 중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고고학·미술사·인류민속·현대미술·자연사 등 5개 주제를 학기별로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 12월 현재

9) 대학박물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성과에 대해서 영남대학교박물관의 '박물관대학강좌' (성태규 1994)와 충북대학교박물관의 '박물관대학' (이용조 1998) 등에 대한 관련 자료가 발표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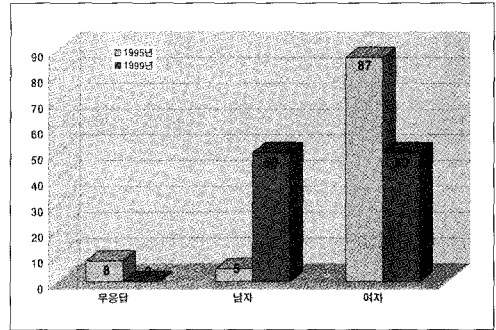
까지 130회의 강좌에 통산 20,959명이 수강하여, 매 강좌마다 161명 가량이 수강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표 5〉 참조).

〈표 5〉 '서울대학교박물관수요교양강좌' 강좌 수 및 수강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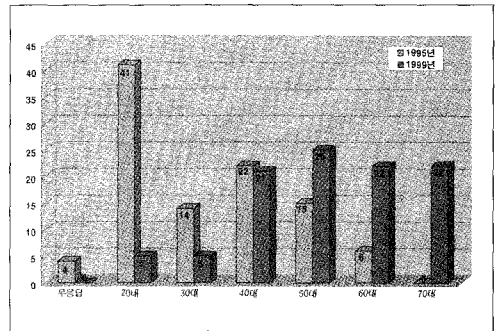
강좌 년도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		합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강좌 년도	현대미술	고고학	전통미술	자연사	인류민속	현대미술	고고학	자연사	전통미술	인류민속	
강좌 수	10	10	15	13	14	12	15	15	14	12	130
수강인원	3,642		2,061	1,185	2,288	1,826	2,819	2,416	2,867	1,810	20,959

강좌를 개설한 직후인 1995년과 1999년에 강좌에 대한 수강생의 분포와 반응을 알아보고 강좌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¹⁰⁾, 이하 두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함으로써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수강생의 연령별, 성별, 학력 및 직업별 구성을 보면(〈삽도 1~4〉 참조), 연령은 '99년의 경우 40대 이상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도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95년 당시 30대 이하가 59%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며, 대체로 수강생이 고령화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수강생의 연령분포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는 당초 강좌를 개설할 당시와 현재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교내 학생들의 반응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95년도의 조사시에는 학생이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비해 '99년도 조사시에는 학생이 5%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본 강좌 개설시 주요 수강대상으로 삼았던 학생들은 현재에는 거의 수강하지 않는 것으로 판



〈삽도 1〉 수강생의 성별분포도



〈삽도 2〉 수강생의 연령분포도

10) 1차 설문조사는 1995년 5월 3일과 10일 양일 간의 수강생 중 2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차 설문조사는 1999년 4월 14일 수강생 중 12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단되며, 강좌의 방향도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강생의 性比 역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99년도 조사시에는 남(49.6%)·여(50.4%)가 비슷한 구성비를 보이고 있는데, '95년도 조사 당시의 남녀 구성비(여자가 87%)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역시 연령층의 고령화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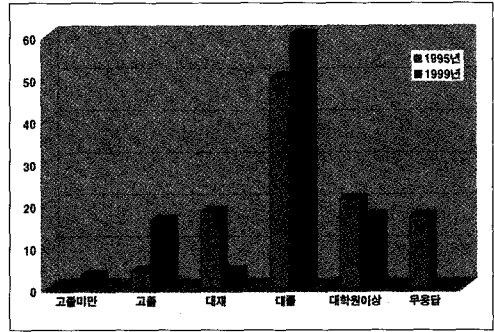
수강생의 학력 분포를 보면 대학 재학 이상이 81%로 '95년도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도 16.5%나 차지하고 있어서 본 강좌를 수강하는 대상의 수준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학 재학생의 비율이 4.1%에 불과하여 본 강좌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재학생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강생들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주부가 38.8%로 가장 많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95년도의 구성비(주부 39%)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대신 무직자들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강생들이 고령화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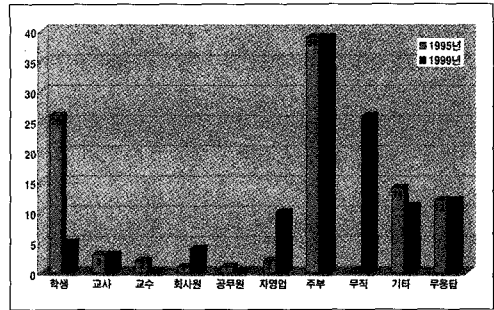
그밖에 수강생들이 이 강좌를 수강하게 된 동기를 보면 71.1%가 주변 사람의 권유에 의해 본 강좌를 수강하게 되었으며, 언론매체의 홍보에 의한 경우는 18.2%에 불과하다. 기타 교내에 부착된 현수막이나, 게시판, 동창회보 등도 수강생들이 강좌에 대한 정보를 얻는 매체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현재 강좌의 주제 및 시간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99년도의 경우 수강생들의 62.8%가 기존에 본 강좌를 1학기 이상 수강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학기 이상 수강한 고정적인 수강생들도 1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강좌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주제는 1999년도의 조사시에는 고고학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술사(22.3%), 인류민속(21.5%), 현대미술(14.0%), 자연사(9.9%) 및 기타(3.3%)의 순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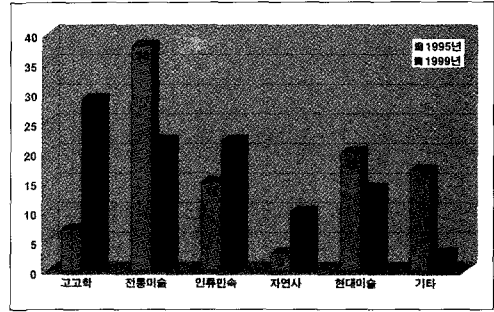


〈삽도 3〉 수강생의 학력분포도



〈삽도 4〉 수강생의 직업분포도

타났다. 그러나 1995년도의 조사시에는 전통미술 분야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대미술(20%), 인류민속(15%), 고고학(7%), 자연사(3%)의 순으로 나타나서 두 차례의 조사 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설문조사를 실시할 당시에 진행되는 강좌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1995년도에는 현대미술 분야의 강좌가 진행 중이었으며, 1999년도에는 전통미술 분야의 강좌가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수강을 희망하는 분야가 인접 분야에 몰리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타 수강을 희망하는 주제로는 불교미술이나 불교문화, 영화 등을 주제로 채택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삽도 5〉 수강을 희망하는 주제 분포도

강좌 수준에 대해서는 수강생의 90.9%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강좌 시간에 대해서도 86.8%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본 강좌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49.6%였으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3.3%로 대체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생들 중에서 다른 강좌를 수강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52.9%로 절반 이상이 하나 이상의 다른 강좌를 수강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역사·문화에 대한 수강생들의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수강경험이 있는 다른 유사강좌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강좌가 가장 많았으며, 민속이나 미술 분야에 대한 강좌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수요강좌에서 개선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강자의 17% 가량의 응답자가 개선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강좌를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수강자가 3.3%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선 사항 중 강좌 주제의 다양화와 강좌 시간의 조정에 대한 응답이 강의 수준이나 강사선정의 적정성 문제보다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응답자의 10% 정도가 강의실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로는 역사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비디오아트나 전위예술과 같은 현대미술분야 중 특수한 분야를 강의해 주길 원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집중적인 강의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으며, 한 학기에 2개의 주제를 동시에 강의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밖에 강좌 시간에 대해서는 주 1회 3시간이나 주 2회 4시간으로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오전 시간대로 옮겨달라는 응답도 있었다. 강좌의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5명)

만이 불만을 표시했으며, 강의 수준을 높여달라는 요구와 상식 수준의 강의를 요구하는 의견이 비슷하게 제기 되었다. 강사의 선정에 대해서는 25%(3명)만이 개선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특정 강사를 못마땅해하거나, 요구하기도 하였다. 시설에 대한 불만은 대체로 냉난방에 관한 것이었으며, 강당의 필기대 시설과 조명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커피자동판매기를 설치 해주었으면 하는 응답도 있었다. 기타 개선해야할 사항으로는 사전준비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강의 교재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밖에 강의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물관이나 수요교양강좌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현장학습이나 답사를 요구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대체로 앞의 개선사항과 중복되는 응답을 하였다.

위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연령이나 학력 및 계층과 관계없이 박물관 강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체로 현재의 강좌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나의 강좌를 실시하는데서 강좌 수준이나 시간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박물관의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 강좌에 대한 홍보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연령이나 계층에 맞는 전문화된 다양한 강좌가 개설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강생의 연령층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강좌 방향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結 語

박물관이 겪어온 역사를 통해 볼 때 박물관의 개념이 점차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과거의 박물관이 寶物 收藏庫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박물관의 주요 임무가 소장된 寶物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박물관은 教育機關으로서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고, 따라서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서구사회에 있어서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의 변화는 이미 1960년대 말에 시작되었으나(Herbert Ganslmayr · 朴銀順 譯 1987: 57),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직 박물관이 교육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학박물관은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 내에 설치되어있는 까닭에 교육적 기능이 더욱 강조된다.

앞에서 우리 나라 대학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과 관련된 현황과 교육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

으며, 이를 간략히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대학박물관의 교육방안으로는 우선 관련학과의 강의와 연계시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 강의의 전 과정을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유관 학과의 각종 실습 과목은 직접 박물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계절학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박물관 학예직 인력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박물관에 교수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권장할만하다.

다음으로는 전시를 통한 교육활동을 들 수 있는데, 평시의 상설전시와 특별전시 또는 기획 전시를 들 수 있다. 전시활동은 박물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의 하나이며, 이를 통하여 관람객들에게 관련된 분야의 지식을 쉽고도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시는 종합적인 연구의 결과로서 체계적이고 입체적이어야 한다. 평상시 학생들로 하여금 박물관 관람을 하도록 유도하여 간접적인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관련 교과목의 강의 도중 박물관을 관람하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한다든지 주제와 관련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제시할 수 있다.

대학박물관의 사회교육활동은 지식의 사회환원이나 지역사회와의 융화, 평생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다른 교육적 활동에 비해 비교적 많은 대학박물관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박물관대학'이나 '박물관교실' 등 각종 무료 강좌를 실시하거나 각종 강연회 및 발표회를 개최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일부는 '박물관회원제'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박물관 활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인터넷을 비롯한 공공통신망을 이용한 자료의 보급활동을 들 수 있는데,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의 보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이용자 스스로가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커다란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대학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은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대학박물관의 교육활동이 부진한 이유로는 우선 박물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많은 개선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박물관이 박물관 용도에 맞는 독립건물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박물관의 기본적인 구성공간인 전시실·수장고·강당·연구실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예직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박물관에서 1~2명의 학예직 인력이 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등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담당해야하며, 일부 대학박물관에서는 일반 행정업무까지 학예직 인력이

담당하고 있어서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밖에 예산과 관련된 문제로 대부분의 대학박물관이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예산 항목이 아예 편성조차 되어있지 않은 곳도 많이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몇 가지 교육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들이 먼저 갖추어져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학예직 인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항목이다. 학예직 인력은 박물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학기술자로서의 학예직원·연구자로서의 학예직원·교육자로서의 학예직원 등 최소한 3개 분야 이상의 학예직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끝으로 현 박물관 구성원들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분야에 대한 재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현재 인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박물관교육'이라는 개념 정의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며,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박물관 구성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